

파운드리에 SoC까지… 삼성, 日서 반도체 초격차 과시

〈시스템온칩〉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광폭행보

日 불화수소 일부공정 대체 성공
“이재용 주도 빨빠른 대처 성과”

7나노 양산, 5나노 개발 성공
연내 4나노 개발계획 등 소개



삼성전자가 일본 도쿄에서 연 파운드리 포럼 2019 재팬에는 현지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몰려들어 여전한 협력 관계를 확인시켰다. 사진은 정은승 파운드리 사업부장.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내장형 M램을 양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뉴스

시작된지 불과 한달여만에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가 자사 기술력과 안정성을 소개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비상 조치를 실시해 빠르게 성과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산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의도 보다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자랑하며 현지 업계 마음을 사로잡는데에도 노력했다.

‘초격차’ 작전에 돌입한 극자외선(EUV) 미세 공정 기술력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7나노 양산과

5나노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말까지 4나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3나노 게이트올라운드(GAA)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파운드리뿐 아니라 자사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도 자랑했다. 바로 이날 처음 공개한 통신모뎀을 통합한 칩(SoC)인 엑시노스 980이다. 엑시노스 980은 5G 모뎀과 8코어

CPU, 말리 G76 GPU 등을 담아 적은 면적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NPU도 함께 탑재해 ‘온 디바이스 AI’도 실현해낸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전자가 생산뿐 아니라 설계에서도 높은 역량을 갖고 있어 경쟁사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차세대 메모리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강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소니가 공급받는 제품이 업계 최초로 내장형 M램을 탑재했다고 확인되면서다.

M램은 전송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저장 기간이 길면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난 차세대 메모리다. 제품 특성상 시스템반도체 내장형으로 발전해왔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개발에 나서 지난해부터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걸림돌은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

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5%로 1위, 삼성전자는 18.5%로 2위다. 1분기에는 TSMC가 48.1%, 삼성전자가 19.1%로 본격적인 추격이 기대됐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일본수출규제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풀이가 나온다. 파운드리 시장도 약세다. 미중무역분쟁으로 IT 시장이 얼어붙으면서다.

다만,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액만큼은 전년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5G 스마트폰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그 밖에도 업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일찌감치 EUV 공정에 힘을 실으면서 경쟁사보다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갖춘데다가, TSMC가 잇딴 사고를 겪으면서 신뢰도를 잃었고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에 특히 침해 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악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는 안정적인 생산이 중요해서 업체를 금새 바꾸지는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천천히 시장 점유율을 뺏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파운드리(반도체 생산전문 사업)가 광폭행보를 시작했다. 생산 능력뿐 아니라 설계, 차세대 메모리까지 장착하고 업계 1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4일 일본 도쿄 인터시티홀에서 개최한 ‘파운드리 포럼 2019 재팬’에는 현지 반도체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주요품 목 수출규제)에서 제외한 직후라 다소 차가운 분위기가 예상됐지만, 정작 참가자들은 삼성전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삼성과 격돌한 소니도 연사로 무대에 올라 주목을 끌었다. 세미컨더터 솔루션즈나카노 겐이치 시스템LSI디자인 총괄부장이

주인공이다.

겐이치 부장은 최근 일부 제품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수주했다며 여전한 협력을 과시했다고 전해졌다. 현지 재계도 정치 문제가 사업에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이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근 일부 공정에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도 이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가

경상수지 69.5억 달러 ‘올 최대 흑자’

한은, 7월 잠정 국제수지 발표
투자소득수지 30.8억 달러 ‘역대최대’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9억 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흑자 규모다. 하지만 수출이 반도체·석유 단가 하락으로 8개월 연속 내리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9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93억 5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6억 6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48억 100만달러 흑자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동월(85억 5000만달러)에 비해서는 16억 달러(19%) 감소하며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축소 흐름을 보였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건 본원소득수지가 3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특히 투자소득수지가 역대 최대인 30억 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배당소득수입은 지난해 7월 14억 7000만 달러에서 올해 7월 28억 9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자소득수입도 19억 달러로 역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등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본사로 회수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개선된 점도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서비스수지는 16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월(-30억 9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14억 2000만 달러(46%) 줄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같은 기간 14억 9000만 달러에서 11억 8000만 달러로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11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품수지는 61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7월(107억 9000만 달러)보다 46억 달러(43%) 급감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89@



7.3인치 대형화면 반 접어 주머니에 쓱~
접었다 펴다 ‘폴더블 폰’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5G’ 출시

4.6인치 커버디스플레이 통해
기존 폰처럼 전화·앱 등 사용
사용하던 앱 끊김없이 내부로
대화면 분할 ‘멀티 액티브윈도’



갤럭시 폴드 5G 스페이스 실버.



/삼성전자

플레이를 통해 끊김 없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앱 연속성’도 지원한다. 또한, 7.3인치 대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2분할 혹은 3분할로 나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액티브 윈도’를 지원해 보다 강력한 멀티 태스킹 경험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는 후면에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00만 화소 카메라의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는 커버 카메라로 셀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갤럭시 폴드는 최신 프로세서, 12GB의 강력한 RAM과 512GB의 내장 메모리, 4235mAh의 대용량 듀얼 배터리를 탑재해 PC에 버금가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는 스페이스 실버와 코스모스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

격은 239만 8000원이다. 6일부터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SK텔레콤·KT 온라인몰, 유플러스 주요 매장, 디지털프라자 홍대점·강남본점 등 전국 10개 디지털프라자와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판매된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여러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를 여는 갤럭시 폴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국내 출시를 기념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제품을 구매하고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수리 비용의 70%(1년 1회, 개통일 기준) 지원, 프리미엄 상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폴드 어드밴티지 플러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9월 30일까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대상 한정 수량으로 명품 브랜드 몽블랑과 협업한 갤럭시 폴드 전용 프리미엄 케이스도 증정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